



**DGB금융, 지역민 지원 위해 직원급여 반납분 기부**  
 DGB금융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급여 일부를 대구광역시에서 기부했다. DGB금융은 약 66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희정 사무처장, 최태곤 DGB상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지주

# 노무현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의 군대



문영철 기자  
 국방 칼럼

자주국방의 가치를 든 문재인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인들을 독전 하면서도 토닥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년차였던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각 무기체계의 전력지수 등을 고려해 양보다 질 중심인 군 구조개편을 계획했다.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등 민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도 비슷해 보이지만, 두 정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인 군인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그해 7월 12일 경북 포항 해병 제1사단을 방문해 "열심히 훈련하고 막강한 해병으로서 단련돼 나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며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더욱더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강한 군인이 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말은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 즉 무기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군인의 정신적·신체적 강인함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질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훈련이지만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는 지난 27일 서울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더욱 굳어졌다. 서 장관은 "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준에 멈춰있다. 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검증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청년 장교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가 소속된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상황장교였던 후배는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지만, 강한 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청년 장교들 다수는 이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병들은 방역지

원뿐만 아니라 각종 대민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대신 휴가와 외출·외박은 통제됐고, 영의 훈련도 제한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더 중요시되는 과학화 훈련은 기본적인 숙달훈련 없이는 '게임'으로 전략할 수 있다. 더욱이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었다. 군의 숙련도는 점점 기대하기 힘들다.

여성의 군대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전투병과 지휘관으로 임명도 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유약해진 여성 군인들도 눈에 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투에서 총알과 파편은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군내 여성의 높아진 위상만큼 여성의 전투생존성도 높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는 군인의 훈련뿐만 아니라, 군인의 처우도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대는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제대 군인들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세웠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의 호봉과 군인연금마저도 근본적 분석보다 단순한 남녀평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 노무현의 애군정신이 그리워지는 시기다.

/captinm@metroseoul.co.kr



**우리카드, 섹타나인과 공동 마케팅 추진 맞손**  
 우리카드가 SPC그룹의 계열사 섹타나인과 지난 28일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우리카드-섹타나인 양사 간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오른쪽)과 이경배 섹타나인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 코오롱, 백혈병 환아 위해 헌혈증 550매 기증



**CJ나눔재단, 청소년문화동아리 온라인 쇼케이스 성료**  
 CJ나눔재단이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온라인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는 '문화를 꿈꾸는 청소년, CJ라는 꿈지기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문화동아리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1000여명을 비롯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업계 최고 전문가(마스터 멘토), CJ임직원 등 총 200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CJ나눔재단의 청소년 문화동아리 온라인 쇼케이스 폐막식 모습. /CJ나눔재단

## '위 투게더 2021' 일환 임직원 헌혈 참여 확대

코오롱그룹이 백혈병과 소아암 환아들에 피를 나눴다.

코오롱은 2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50매를 전달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사회와 특정한 연대로 더불어 살자는 '위 투게더 2021' 일환이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해 헌혈 캠페인을 3차례 늘리고 임직원 참여를 확대해 확보했다.

아울러 코오롱은 이날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도 함께 기부했다. 김승일 부사장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처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김승일 코오롱CSR사무국 부사장(왼쪽)이 헌혈증 550매를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코오롱그룹

김승일 부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절감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임

직원의 따뜻한 나눔으로 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남양유업 경주공장, 지역 아동위해 후원물품 전달**  
 남양유업 경주공장 임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공장장을 비롯한 경주공장 임직원들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지역 내 보육원 2곳과 지역 아동센터 8곳 등 총 10곳의 기관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소외 아동들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펼치는 경주공장 임직원. /남양유업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이신호 △국립전주박물관장 홍진근 ◇고위공무원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윤성천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 △저작권국장 이수명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김일환 ◇과장급 전보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최원석
- ◆중앙그룹 ◇중앙일보M&P △이사 방규환(사업본부장) 최희준(마케팅본부장) ◇중앙일보 △오피니언비주얼에디터 안충기
- ◆국민일보 △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 박

현동 △대기자 겸 종교국장 정진영 △경영전략실장 배병우

- ◆한국일보 △뉴스룸국대전취재본부장 한덕동 △부산취재본부장 이동렬
- ◆서울문화사 △출판팀 부국장대우 신수경 △아래나미디어비즈니스팀 부국장대우 홍석균 △재무관리팀 부국장대우 이필용 △우먼스펜싱팀 부장대우 박유리 △우먼스펜싱팀 부장대우 하은정 △출판마케팅팀 부장대우 홍성현 △충무제작팀 부장대우 오길섭 △인사팀 부장대우 안종화
- ◆시사저널사 △취재1팀 부국장대우 감명국 △취재2팀 부장대우 이석
- ◆에너지경제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 민석기

## 부음

- ▲김광호씨 별세, 김진우(현대차증권 Brand&PR팀 책임매니저)씨 부친상=31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일, 010-5036-4159
- ▲이학균씨 별세, 이민후(보통매일 발행인 대표이사)·이유리·이세리·이루비씨 부친상, 김혜숙씨 시부상, 김수복·임정현·박선우씨 장인상 = 31일 오전 7시, 일산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30분, 031-908-8612
- ▲송재용씨 별세, 이종태(의정부시 홍보과장)씨 모친상 = 31일, 의정부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31-871-4444